



지난 22일 오후(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18 호주오픈'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승리한 정현(오른쪽)이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경기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 '우상' 조코비치 꺾고 한국인 첫 메이저 8강...4강 진출엔 '황제' 페더러와 격돌 가능

오늘 오전 11시 호주오픈 8강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 8강 고지에 오른 정현(58위·삼성증권 후원)이 내친김에 4강 진출까지 넘보고 있다.

정현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4회전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를 3-0(7-6<7-4> 7-5 7-6<7-3>)으로 완파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진출한 정현은 24일 오전 11시 테니스 샌드그렌(97위·미국)과 준준결승을 치른다.

8강에 오른 8명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낮은 정현과 샌드그렌이 맞대결을 벌이게 된 셈이다.

그만큼 정현과 샌드그렌은 이번 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정현은 3회전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4위·독일)를 3-2(5-7 7-6<7-4> 2-6 6-3 6-0)로 물리쳤고, 4회전에서는 전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까지 제압했다.

이에 맞서는 샌드그렌도 2회전에서 스탠 바브링카(8위·스위스)를 3-0(6-2 6-1 6-4)으로 돌려세웠고 22일에는 도미니크 팀(5위·오스트리아)을 3-2(6-2 4-6 7-6<7-4> 6-7<7-9> 6-3)로 꺾었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를 두 차례나 꺾으며 2회전에서 바브링카를 잡은 것이 '재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정현과 샌드그렌은 지난 9일 남자프로 테니스(ATP) 투어 ASB클래식에서 한 차례 만나 정현이 2-1(6-3 5-7 6-3)로 승리했다.

샌드그렌은 지난 시즌까지 두 대회보다

한 단계 낮은 챌린저 대회를 주무대로 삼을 정도로 무명에 가까운 선수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낸 것도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정현보다 5살 많은 샌드그렌은 키는 188cm로 정현과 같지만 이번 대회 매 경기 서브 에이스를 10개 이상 터뜨리며 상대를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샌드그렌이 '광속 서브'로 불릴 만큼 서브가 특출난 선수는 아닌 데다 정현은 최근 투어에서 손꼽히는 '서브'인 존 이스너(16위·미국), 다닐 메드베데프(53위·러시아), 즈베레프 등을 모두 꺾으며 서브가 강한 선수를 요리하는 법을 터득했다.

정현이 샌드그렌을 제압하면 4강에서는 페더러-베르디흐 승자와 만난다. 페더러와 베르디흐의 상대 전적은 페더러가 19승 6패로 앞서 있고 2014년부터 최근 8연승 중이기 때문에 페더러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정현은 아직 페더러와 맞대결한 적은 없다.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진수 JSM 테니스 아카데미 원장은 "정현도 상승세지만 샌드그렌도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기라고 봐야 한다"며 "상대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것"이라고 경계심을 내보냈다.

그는 또 "메이저 대회 8강부터는 모든 경기가 50 대 50이다. 상대가 랭킹이 낮은 선수라고 해서 긴장을 늦추면 최악의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달 초에 한 차례 맞대결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정현 한국 선수 최초 메이저 8강 진출

●출생 1996년 5월19일(경기 수원)

●신체 188cm/80kg

●소속 삼성증권

●주요 경력 및 수상

2011 제주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복식 우승

오렌지보물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16세부 단식 우승

2012 인도국제주니어차대회 단식 우승

오렌지보물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 우승

2013 ITF서울남자퓨처스2차 대회 단식 2위

ITF남자퓨처스대회 단식 2위

퀸즐랜드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 준우승

캐나다오픈주니어테니스대회 복식 2위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대입대회 복식 금메달

2015 남자프로테니스(ATP) 서베너 챌린저대회 우승

ATP 부산오픈 챌린저대회 우승

ATP 금메달·남자복식 은메달·남자단체전 금메달

2017 남자프로테니스(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우승(한국 선수로 14년 10개월 만)

2018년1월22일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6강전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 상대 3-0 승리, 8강 진출

“큰절, 멋진 무대에서 해보고 싶었다”

정현 일문일답

잠시 멈춰 선 정현은 관중석을 향해 큰 절했다. 이색적인 광경에 외신 사진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다.

경기가 끝난 뒤 정현은 “최근 저를 도와주시는 스폰서, 매니저, 팀,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곳으로 절했다. 언젠가는 멋진 코트에서 승리하면 그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2016년 호주오픈 1회전에서 조코비치에게 0-3으로 패했던 정현은 2년 만에 3-0으로 완벽하게 되갚았다.

정현은 경기 직후 코트 인터뷰에서 “조코비치가 내 우상이었다”고 말했고, 조코비치는 “정현은 오늘 이길 자격이 충분했다”고 추켜세웠다.

다음은 정현과 일문일답.

-우상 조코비치를 꺾었다.

▲작년 팔꿈치 부상 이후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큰 경기에서 롤모델로 삼은 선수와 경기해 승리해서 더욱 값진 것 같다.

-언제 승리를 확신했는가.

▲(조코비치의) 마지막 포인트가 아웃된 순간이다.

-오늘 포핸드가 좋았다.

▲이번 경기를 통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꾸준히 연습한 결과다.

-이번 대회 첫 야간경기를 치렀다.

▲야간경기를 한 덕분에 쉴 시간이 있었다. 지난 경기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와) 5세트를 했다.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이겨내야 한다.

-승리 후 카메라에 ‘보고 있나’라고 사인한 건 무슨 의미인가.

▲전 삼성증권 (김일순) 감독님한테 약속했다. (보고 있나) 위에는 캡틴이라고

썼다. 삼성증권이 해체되고 감독님 마음 고생이 심하셨다. 이렇게나마 위로해드리고 싶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그랜드슬램 8강에 올랐다.

▲한국 테니스가 저로 인해 오늘 이후로 봄이 일어났으면 한다. 많은 꿈 가운데 하나가 이뤄졌다.

-2년 전과 지금의 조코비치를 평가한다면.

▲저 같은 선수가 조코비치를 평가하는 건 그렇다. 다만 그가 말한 것처럼 좀 더 성숙하게 하려고 했다. 테니스 팬이나 유망주가 저를 보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한다.

-경기가 끝난 뒤 조코비치가 뭐라고 말했다.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했다. 다음 경기도 잘하라고 이야기해줬다. /연합뉴스

“정현, 세계 톱10에 오를 것”

조코비치

만약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았다면, 정현(58위·삼성증권 후원)을 두고 ‘팔목상대’라고 말했을지 모른다.

2016년 호주오픈 1회전에서 조코비치는 정현을 처음 만났다.

당시 세계 1위였던 조코비치는 정현을 상대로 어렵지 않게 3-0으로 승리했고, 기세를 몰아 그해 남자단식을 제패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하자마자 코트에 복귀한 조코비치는 예전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맞선 정현은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조코비치는 압도했다.

조코비치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 그런데도 그는 경기가 끝난 뒤 정현의 가슴을 두드려주며 진심을 담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했다. 호주오픈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조코비치는 “정현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선수가 됐다. 의문의 여지 없이 오늘 승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극찬했다.

이어 “정현은 어려운 상황에 몰려서도 믿을 수 없는 샷을 날렸다. 코트에서 그는 마치 벽과도 같았다. 그가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그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육체적으로 성장했다. 정신적으로도 지난 시간 동안 큰 경기를 통해 성장한 게 보인다. 오늘 정현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현은 경기가 끝난 직후 “조코비치가 우상이었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선수다. 정현은 의심할 여지 없이 10위권에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성장할지는 그에게 달렸다. 정말 열심히 경기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